

渤海와 新羅의 服飾 比較 研究

전 현 실 · 유 송 옥*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The Study on Costume in Palhae and Shilla

Hyun-Sil Jeon · Song-Ok Ryu*

Dept. of Clothing&Textiles, Sung Kyun Kwan University
Sung Kyun Kwan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As the result of the study of this thesis, the costume of Palhae and Shilla shows the many similarity.

1. The two countries introduced the system of four-colored official uniform. This official uniforms are BokDoo(幞頭), DanLyung(團領) and Dae(帶). DanLyung of Palhae are GyulGoPo(缺髀袍), leather belt and that of Shilla are GyulGoPo, YuLanPo(有襪袍), KwaDae(鈔帶). Similary BokDoo shows the long Gak(脚) in back.

2. Yu(襦) and Ko(袴), the native costumes have worn even after the period of the three countries.

3. The two countries wore DanLyung. A man in Palhae wore GyulGoPo(缺髀袍), leather belt and a man in Shilla wore GyulGoPo, YuLanPo(有襪袍), KwaDae(鈔帶).

4. A woman in Palhae wore SangEui(上衣), Sang(裳), JikLyung(直領) one by one. And over Sang wrapped PoBaekDae(布帛帶) and covered the shoulder by UnGyun(雲肩). A woman in Shilla wore SangEui, Sang, PoBaekDea one by one and covered the shoulder by Pyo(裓).

5. The two countries put on Rib(笠)and similiary shoes. Rib insists of MoChe(帽體), ChaYang(遮陽) and can classify the estate by decoration. A man wore Wha(靴), Li(履) and a woman wore KoDooLi(高頭履).

This similarity is the result by the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Palhae and Shilla. There are the five reasons. Interchange by the envoy's visit, Interchange through Shillado(新羅道), Interchange in T'ang Dynasty, Interchange in Japan, Interchange of Buddhist culture.

By the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Palhae(渤海) and Shilla(新羅), the shape of costume is similiary. The meaning of this similarity of costume equals to the similarity of culture. We will approval Palhae is the co-subject of Korean history with Shilla and will name as "The period of NamBukKuk(南北國時代)" from the late 7th century to the early 10th century in the academy of the history of Korean Costume.

Key Words : Palhae, Shilla, Costume, Similarity

I. 序 論

발해와 신라는 존속 시기가 7세기 후반~10세기 전반에 걸쳐 南北國을 이루면 共存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渤海史 研究는 남·북한 모두 1950년대를 기점으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었다.¹⁾ 渤海史 研究에서 중심을 이루어온 主題는 발해사의 歸屬問題, 地理考證, 對外關係, 考古調査 및 研究, 內部社會의 여러 양상들, 遺民活動 등이다. 1980년대에 중국측의 고고학 자료도 직접 인용되기 시작하였고, 文學·音樂·美術·佛像·服飾·建築 등의 인접 학문으로까지 연구범위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들은 발해사가 한국사에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南北國 時代論”이 더욱더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²⁾ 이러한 “남북국시대론”은 歷史學界에서 以前의 ‘統一新羅時代’라는 한계를 벗어나 이미 인정되고 있는 학설이 되고 있다. “남북국시대론”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분이 분명하다면 신라와 동등한 자격 위에 역사상 위치를 주어야 할 것이다.³⁾

본 考의 연구목적은 渤海와 新羅의 服飾을 비교해 봄으로써 7세기 말~10세기 전반에 걸쳐 한반도에 뿌리내린 그 당시의 服飾 文化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服飾史學界에서는 南北國 時代의 渤海 服飾에 관해 小數 學者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⁴⁾ 물론 발해 복식에 관해 역사학자들의 시각에서도 다루어져 오고는 있으나, 발해사 연구의 主題는 주로 政治·考古 關係에서만 폭넓게 다루어져 오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복식에 관한 文獻 및 遺物 資料가 미비하기 때문인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점차 다양한 자료가 밝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면 시야를 넓혀갈 필요성도 제시해 보고 싶다. 또한 이 연구는 歷史的 史實에 근거한 兩國의 文化的 交流를 통해 兩國 服飾이 類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하에서 渤海가 韓國史의 일부로 新羅와 함께 南北國 時代를 형성했다는 근거로서 服飾의 유사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연구 방법은 渤海와 新羅에 관한 文獻과 遺物에

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두 나라의 服飾을 살펴본 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문헌자료는 발해 자체적으로 남긴 文獻史料가 없으므로 中國과 新羅나 그 이후의 사료에 남아있는 단편적인 기록을 참고로 하였다. 유물자료는 壁畫 人物, 古墳 裝身具 등에 관한 畫報와 報告書를 참고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渤海와 同時代인 唐의 服飾 자료와 日本 交流에 관한 기록을 통해 新羅와의 交流 關係를 유추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渤海의 존재 시기인 698~926년의 7세기 말~10세기 전반에 걸친 新羅와 더불어 高句麗와 古新羅까지 時代를 연장해 폭넓은 시기를 다룸으로서 복식 문화의 전반적인 변화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渤海는 高句麗 遺民의 건국지였고, 건국 시기에 고구려의 선진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하여 留學生, 僧侶 등을 통해 唐代의 制度, 漢字 使用, 經書 耽讀과 같은 唐의 文化를 수용하면서 발해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歷史的 史實을 대부분의 學者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해 문화의 고구려 문화로의 유추는 가능하다. 발해가 당 뿐만 아니라 일본 등 여러나라와 경제·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발해 문화의 바탕을 이룰 수 없고⁵⁾ 고구려 문화의 바탕 하에 다른 문화들을 수용하여 발해의 고유한 문화로서 발전된 것이다.

II. 渤海와 新羅의 史的 背景

발해와 신라는 당과 함께 政治的 이해 관계로 인해 대립과 우호 관계가 교차되었는데, 대립 관계의 시기가 많았다. 대립 기간이 비록 길기는 했지만 渤海와 新羅는 단속적이거나 교섭이 진행되어 왔음을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元聖王 6년(790)에 一吉漁 伯魚를 북국에 사신으로 보냈다⁶⁾ 하고, 憲德王 4년(812)에는 級漁 崇正을 北國에 사신으로 보냈다⁷⁾는 기록이 있다.

두 나라의 交流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新羅道’⁸⁾〈그림 1〉라는 공식적 통로가 있었다고 전하고⁹⁾ 8세기 당의 지리학자 賈耽

(730~805)이 쓴 <古今郡國志>에는 신라의 井泉郡에서 발해의 柵城府까지에 걸쳐 39개의 驛이 있었다¹⁰⁾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나라의 교섭의 교류는 단속적으로 이어져 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新羅道<그림 1>에 관해서는 <續日本記> 寶龜 8년(776) 기록¹¹⁾, <新唐書>¹²⁾, <渤海考>¹³⁾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册府元龜>에는 天寶 6년(747) 正月¹⁴⁾ 기록, 太和 3년(829) 12월¹⁵⁾ 기록과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조공 기록은 다음과 같다.

“太和四年(830) 十二月 吐藩廻鶻新羅渤海南詔蠻 牂牁昆明奚契丹並遣使朝貢”

“太和五年(831) 十一月 吐藩廻鶻奚契丹新羅渤海 南詔牂牁並遣使朝貢”

“開成元年(836) 十二月 吐藩廻鶻新羅渤海奚契丹 牂牁南詔蠻昆明各遣使朝貢…”

천보 6년은 747년으로 문왕대 신라와의 관계는 신라도가 개설되기 이전에 이미 양국 사신이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태화 3년은 829년, 태화 4년은 830년, 태화 5년은 831년, 개성 원년은 836년으로 신라도가 개설된 이후에도 발해와 신라가 계속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公式的인 교류 통로가 없어도 양국간 교류가 가능하여 일반 백성들간의 非公式的인 교류도 多數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唐의 太宗(763~779) 이후 절도사의 소재지에 渤海館과 新羅館을 설치하여 당나라에 들어오는 두 나라의 사신을 여기서 영접함으로써 발해국의 交易船도 이곳에 닿을 내렸다¹⁶⁾는 기록이 있어 신라 사신과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겠다.

한편 交易路를 통한 신라와의 접촉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데 日本과의 교역은 발해뿐만 아니라 신라와도 이루어졌다. 일본에 신라의 私貿易船이 들어오고 814년에는 長門國에 신라 상인 31명이 표착하였다.¹⁷⁾ 그런데, 발해사들은 9월 하순에 장문국 바로 위인 出雲에 도착하였다. 또한 張寶高의 죽음을 전후한 시기에도 역시 渤海船과 대규모의 사절단들이 장문국에 도착한다. 후대의 발해 사신들도 역시 이 지역을 도착 지점으로 하였다. 일본의 角鹿, 山陰 地方은 발해인과 신라인의 접촉이 가능했

던 곳이다. 이처럼 교역을 통해 발해인들은 신라인과 접하였을 것이며, 서로의 文化를 교류하는 기회가 있었고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尹明喆¹⁸⁾도 이런 접촉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9세기에 들어오면 발해와 신라의 긴장 관계가 풀려서 前 時代에 비해 근해 항해를 많이 하는 등 비교적 안전한 항로를 취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渤海船들은 908년까지 산음 지방 중 伯耆에 도착하였는데 민간 무역을 금지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도착하였다. 이처럼 비공식적인 움직임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기록이 없지만 발해와 신라의 文化的 接觸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또한 <陝溪太氏族譜>¹⁹⁾ 중 발해국왕세력사 武王代(731)²⁰⁾ 기록과 △王(虔晃)代(864) 기록²¹⁾과 같은 발해와 신라의 우호 관계 기록을 통해 문화적 교류가 가능했음이 설명될 수 있다. 이 또한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 하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웃한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이민족들로 구성되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들 사이에는 대립과 전쟁만이 아니라 때로 우호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였다. 약 230년간 대치하며 공존했던 발해와 신라도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佛敎 文化의 교류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는데, 발해(후고구려 포함)와 신라의 名僧들은 서로 왕래하면서 불교를 전하였다. <三國史記> 興德王 2년(827) 기록에는 “고구려의 스님 구덕이 당나라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오니 왕은 여러 절의 스님들을 모이게 하여 그가 오는 것을 맞이하였다.”²²⁾라는 기록이 있다. 이 때 고구려라는 명칭은 시기로 봐서 발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발해와 신라의 또 다른 교류 기록이라 볼 수 있겠다.²³⁾ 남북국의 교섭에 관한 기록이 많지는 않았지만 교섭은 단속적으로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로가 단속적으로 교섭이 있어 왔으면서 얼마간 공동체 의식도 있었지만 대립적 상황은 끝내 극복하지 못하였다. 즉 南北國은 대부분의 시기를 대립 상태로 보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립도 적극적 교섭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양국의 정치 상황이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그 社會·文

化的 傳統마저 본래부터 양국이 全的으로 異質의 이었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덧붙여 위에 언급된 단속적인 교류 기록들을 통해서 양국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질성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渤海의 服飾

1. 渤海의 服飾 制度

〈册府元龜〉에는 唐에서 渤海로 官服을 사여했다는 기록이 있어 唐의 文化 뿐만 아니라 服飾도 수용하여 이는 발해 복식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2代 武王代부터 3代 文王代에 이르는 것으로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武王代~文王代の 唐 賜與服飾²⁷⁾

時期	賜與服飾內容
唐 開元 10년 (722)	錦袍, 金魚袋
17년 (729)	紫袍, 金帶
18년 (730)	緋袍, 銀帶
25년 (737)	紫袍, 金帶
27년 (739)	2월에는 紫袍, 金帶 10월에는 紫袍, 銀帶

여기에는 주로 높은 관직의 복장인 紫袍, 金魚袋, 緋袍 등이 사여되고, 金帶와 銀帶도 사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해인들도 금속류의 帶類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여러 고분 출토품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²⁴⁾

渤海의 服飾制에 관한 기록은 〈新唐書〉와 〈日本三代實錄〉, 〈五代會要〉를 통해 그 일면을 살필 수 있겠다. 〈新唐書〉²⁵⁾와 〈渤海考〉²⁶⁾에서 “品으로써 秩을 삼는데 三秩 이상은 紫衣를 입고 牙笏과 金魚를 찻으며 五秩 이상은 緋衣를 입고 牙笏과 銀魚를 찻으며, 六·七秩은 淺緋衣, 八秩은 綠衣로 木笏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표 2>

이를 통해 渤海도 三國時代의 관복제도와 같은 制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고, 같은 성격을 띠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제도 제정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渤海史 속에서

<표 2> 渤海의 官服 制度²⁸⁾ (762년 추정)

品階	1	2	3	4	5	6	7	8	9
服	紫			緋		淺緋		綠	
笏	牙笏					木笏			
魚袋	金魚		銀魚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官服制度가 제정되는 시기는 王權이 확립되고 기강이 안정되는 시기로 百濟는 古爾王 27년(260), 新羅는 法興王 10년(523)을 들 수 있다. 渤海는 文王 이전의 高王(698~719), 武王(719~737)의 두 왕대 30~40년 동안은 국가 초창기로서 對內外 전쟁과 영토 확장을 위한 사업을 앞세우는 기간이었던 만큼 각종 문물제도의 제정 등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야 가능하였다. 또한 원래 이 기간 발해 관직들에 대한 기록으로는 무관의 벼슬 이름이나 그 벼슬 등급을 가리키는 칭호들이 몇 개 남아있을 뿐 원래의 국가 행정기구와 관련된 관청 이름, 벼슬 이름은 거의 없었다.²⁹⁾ 즉 高王大祚榮의 발해 건국 후 武王大武藝의 영토 확장기를 거쳐 文王大欽茂³⁰⁾의 시기에 개혁과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제도가 제정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官服制度를 포함한 모든 제도가 文王 집정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文王 26년(762)에는 渤海郡이 渤海國으로 승격되어 文王도 渤海郡王에서 渤海國王으로 승격되었다. 이는 당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해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기경에 服飾制 또한 발해 고유의 독립적인 제도를 필요로 하였을 것으로 본다.

한편 발해는 외국에 使節을 파견할 경우 실제로 더 높은 품계의 冠服을 착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借緋制’라는 것으로 사절의 대외적 위신을 고려해 실제 관직보다 더 높은 官位의 冠服을 내려 항해의 수고와 대외적 위엄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³¹⁾ 이러한 차비의 효과와 목적을 〈通典〉³²⁾, 〈唐會要〉³³⁾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품이 5품에 미치지 않고서 도독·자사에 임명되는 자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着緋와 佩魚(袋)를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2. 文獻에 나타난 服飾

발해에 관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나 단편적인 자료만을 통해 그 일면을 살필 수 있다. 발해인들은 옛부터 말을 타고 활쏘기를 좋아하여 狩獵 및 蹴鞠과 擊毬를 즐기는 풍습을 지니고 있다.³⁴⁾ 〈渤海國志長編〉 遺裔列傳 중 定安國王 烏玄明이 宋 太宗에게 올린 기록³⁵⁾을 통해 발해는 고구려의 풍습을 계승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高句麗 후기에 蹴鞠이 민간에 광범위하게 유행되었는데, 〈舊唐書〉³⁶⁾의 기록과 〈後漢書〉³⁷⁾의 기록이 있어 이 사실이 입증된다. 또한 擊毬는 7세기 후반에 唐에서 渤海로 전해져 점차 통치 계급과 軍中이 즐기는 항목이 되었다. 이에 관해 〈本朝通鑑〉³⁸⁾, 〈遼史〉 蕭孝忠傳³⁹⁾, 〈東國通鑑〉⁴⁰⁾의 기록이 있다. 발해의 격구는 서울에서만 성행한 것이 아니어서 京, 府, 州, 縣 등 지방의 중요한 鎮과 변경 지대에도 球馬之會가 있었고, 武官 뿐만 아니라 文官들도 매우 즐겼다.⁴¹⁾ 이를 통해서 발해의 官職者 뿐만 아니라 일반 庶民들은 과거 高句麗의 풍습을 계승하고 따르면서 騎馬, 蹴鞠, 擊球 등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활동성 있는 생활을 즐기기 위해 착용했던 窄袖, 直領의 襦와 窮袴 형태의 기본 衣服制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서도 계속되었을 것이며, 衽制에 있어서는 左衽, 右衽이 共用되었을 것이다.⁴²⁾ 또한 지배 계층에서는 襦袴의 의복을 內衣 또는 燕居時 衣服으로 입었을 것이고, 관직의 有無나 지위의 高下에 따라 의복의 幅, 素材와 色相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한편 1949년 敦化市 六頂山과 1981년 서고성자 부근에서 발굴돼 출토된 貞惠公主 墓碑와 貞孝公主 墓碑에서 정혜·정효공주의 몸단장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어 부분적이거나 당시 공주의 복장을 파악할 수 있다. "環佩는 움직일 때 소리를 내었고, 멈추어 서면 組紉이 드러워진다."⁴³⁾ 또한 〈禮記〉⁴⁴⁾, 〈禮記〉 內則⁴⁵⁾ 기록과 鄭玄의 주해⁴⁶⁾를 통해 環佩는 옷에 단 패옥, 組는 실로 짠 넓은 띠, 紉은 組보다 가는 띠임을 알 수 있다. 당시 공주는 옷에 金, 銀이나 金屬으로 된 환패를 달고 넓게 직조된 띠와 좁게 직조된 띠를 몸에 어울리게 둘러서 입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遺物에 나타난 服飾

1) 남자 복식

① 團領

貞孝公主墓⁴⁷⁾ 壁畫〈그림 2〉의 侍衛〈그림 2-2〉, 樂伎〈그림 2-3〉, 侍從〈그림 2-4〉, 內侍〈그림 2-5〉가 입고 있다. 묘사된 인물은 武士, 侍衛, 侍從, 樂伎⁴⁸⁾, 內侍⁴⁹⁾의 직분으로 분류되고 있다.⁵⁰⁾ 정효공주묘 벽화는 묘가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792년 前後에 그려졌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묘사된 인물을 통해 8세기 말경의 渤海 服飾을 살필 수 있다.

단령의 형태는 깃이 받고 길이는 발목길이에 옆트임이 있는 缺袴袍이다. 소매는 시위는 筒袖로 폭이 좁고, 악기·시종·내시는 闊袖로 拱手하고도 늘어진다. 原田淑人은 "袍에는 襪을 가한 縫掖袍와 缺掖袍가 있는데, 〈唐書〉에 高宗 때 長孫無忌가 의논하기를 포를 입은 사람은 下襪을 가하고, 從戎하는 자는 缺袴의 服을 입으며, 軍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長袍를 입히도록 했다"는 기록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하였다.⁵¹⁾ 이를 통해 남자의 포 중 옆선이 붙어있고 끝단에 襪이 있는 文官의 有襪袍와 옆이 트여있는 武官의 缺袴袍 2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內衣

단령 속에 착용하는 것으로 衣와 袴로 이루어져 있다. 上衣은 窄袖이고, 袴는 시위·악기·시종은 끝이 오무려진 窮袴를 착용하고, 내시는 밑단에 襪이 있고 끝이 여며지지 않은 고를 착용하였다. 이는 章懷太子李賢墓 壁畫의 新羅使節〈그림 7〉가 착용한 大口袴와 유사한 형태로 사료된다.

③ 幘頭

발해의 복두는 크게 4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첫째는 幘頭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 脚이 어깨까지 길게 늘어져있는 형태로 〈그림 2-3-a〉 악기·〈그림 2-5-a·b·c〉 내시에서 볼 수 있고, 둘째는 각이 없고 두 개의 끈을 뒤에서 앞으로 끌어올린 형태로 〈그림 2-3-b·c〉 악기에서 볼 수 있고, 셋째는 2개의 끈을 뒤에서 묶어 고정시킨 형태로 〈그림 2-4-a·b〉 시종에서 볼 수 있고, 넷째는 앞에 2개의 끈으로 묶어 올리고 각이 뒤로 길게 늘어져있는 형태로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복두는 본래 周의 武

帝가 제작한 것으로, 한쪽의 천의 끝을 잘라 네 개의 각을 만들어 이를 二脚씩 앞뒤로 묶었다는 의미로 四脚이라고 불리웠던 쓰개이다. 이 형태는 隋와 唐까지 남아있는 형태로 당 초기의 복두는 軟質의 四帶巾으로, 帶를 모두 머리 뒤에서 묶은 것, 二帶는 머리앞 頂上에 매고 2대는 머리 뒤에서 매었으며 길게 드리운 折上巾 형태 등이 있었다.⁵²⁾ 이에서 발전하여 頂上에서 올려댄 대가 점차 작아져서 형식만 남게 되거나 아주 없어지면서 硬質의 복두로 변화하여 간다. 발해의 복두는 이러한 唐 복두 형태와 유사하나 독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④ 抹額

말액은 <그림 2-2-a·b> 시위가 착용한 것으로 高句麗 時代부터 착용되었던 쓰개이고, 이는 고구려 문화 계승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다. <三國史記>에 “고구려 음악에 대해 <通典>에 이르기를, ... 춤추는 자가 4명인데 붉은색 말액으로 머리 뒤로 쇠몽둥이 모양의 상투를 틀고 금귀걸이로 장식한다. ...”⁵³⁾라는 抹額에 관한 기록이 있다.

⑤ 笠

靑銅製 騎馬人物像(그림 4)의 衣服은 묘사되어 있지 않고 笠字形 쓰개를 찾아볼 수 있다. 笠형태의 쓰개는 고구려 龍神塚 벽화와 8~9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르축 출토벽화에서 나타난다. 소르축은 카라샤르(焉耆)에 속하는 곳으로 지리적 위치와 특성상 쿠차(龜茲)로부터 들어온 조형적인 경향과 동쪽에서 들어온 중국적인 영향이 만나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장소였다.

⑥ 帶

가. 鈔帶

鈔에 環이 붙어있는 것으로 환을 통해 물건을 매어 달거나 장식하도록 된 형식이고, 鈔에 환이 달린 것은 新羅의 鈔帶類와 같다. 唐代에는 文武官員이 粘鞞帶를 띠고, 七事를 매달게 하였는데, 칠사란 佩刀, 刀子, 磨石, 契苾, 眞噉厥, 計簡, 火石袋이다. 이러한 鈔帶는 금속 飾板을 붙여 장식한 허리띠로 여기에 腰佩를 매달았는데 이는 허리띠에 드리워 장식하는 여러 가지 꾸미개이다. 원래 帶는 가죽 또는 천으로 만든 묶은 띠인데, 後代에는 허리띠에 일할 때는 工具를 휴대하고 戰時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禮를 행할 때는 옥기를 찰 수 있고,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구와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차고, 鈔具가 달리고 무기와 기타 휴대품을 패용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이는 突厥族, 위구르족(回鶻) 등이 차던 것으로 唐人들에게 유행하게 되어 당의 복제에 채용되었다. 그러나 唐代에는 실용적 의미보다는 장식적 의미로 변화되어 점차로 帶 좌우에 環을 붙이게 되었으며, 장식용 및 가죽의 보호를 위해 금속의 鈔板을 달기도 하고 보석 등을 붙이기도 했다. 이것이 장식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民間 및 婦女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하였다.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있고 사각형이나 다각형의 판모양으로 되어있는 帶鈔는 거의 모든 沿海州·渤海 遺蹟에서 발견된다. 이는 1세기 후반경에 유라시아 대륙에 보급되었던 돌궐 허리띠 부품들로 발해로 여러 경로를 통해 발해로 유입된 것이다.⁵⁴⁾ 이를 통해 발해에서 출토된 허리띠 부품들은 발해 고유의 것이 아닌 중앙아시아의 대륙을 통해 전해져 일반화된 것이라 사료된다.

나. 純金製 帶

河南屯에서 출토된 순금제 허리띠로 細金細工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貞孝公主墓 壁畫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이 革帶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⑦ 暗摸靴

암모화는 무사·시위가 착용한 것이다. <渤海國志長編>에 “발해 사람들은 靴를 만드는데 능하였다. 玄錫 6년(878)에 일본을 방문한 발해 사신 楊中遠은 암모화를 선물로 주었다. 末王(大諲譔) 19년(925) 발해 사신 裴彥은 靴를 後唐에 공물로 주었다. 이 신은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밤행군에 알맞아서 暗摸라고 하였다.”⁵⁵⁾ 이때 언급된 가죽으로 된 靴는 暗摸靴로 사료되는데, 당시 渤海 使臣이 日本에 제공하였던 명산품은 사향노루 가죽으로 된 것이었다.⁵⁶⁾ 발해의 암모화는 日本 正倉院에서 소장하고 있는 烏皮靴와 형태가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⑧ 麻履

마리는 악기·내시가 착용하였고, 시종도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阿斯塔那出土 麻鞋와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사료된다.

2) 여자 복식 -청동여인상<그림 5>

① 上衣, 袍

등근 깃의 상의와 그 위에는 무릎 길이의 大袖直領袍를 입고 있다.

② 裳, 帶

발을 덮는 길이의 상을 입고, 상 위에는 두 줄의 대가 늘어뜨려져 있는데, 가슴높이에서 고정시킨 것으로 보인다.

③ 雲肩

포 위에는 어깨를 덮는 길이의 운건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자리가 구름 모양을 하고 띠고 있다. 운건은 원래 고대 북방 민족의 어깨 장식이었고, 그 원형을 어깨에 두른다는 의미의 '披肩'에서 찾을 수 있다. 隋·唐代的 피건을 한 者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舞妓의 어깨에서 볼 수 있다.

④ 高頭履

청동여인상의 裳 밑으로 보이는 신으로 앞 끝이 올라간 형태를 띠고 있다.

⑤ 髮樣

머리 위 양옆으로 작은 고리를 만들고, 뒤통수를 이등분하여 묶어 고정시킨 雙髻 형태를 하고 있다. 고구려 덕흥리 벽화의 쌍계한 여인도 女僕이고, 수·당·오대의 회화 자료에서 보면 女僕, 侍婢, 舞妓, 樂伎, 少女의 일반적인 발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쌍계한 인물들은 아동, 중, 궁중시녀, 악기, 무기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IV. 新羅의 服飾

1. 新羅의 服飾 制度

新羅는 6세기 이후에 古代國家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도의 整備·分化가 수반되었

다. 그러므로 관료 제도의 정착에 따른 官服의 제정과 관리의 위계 질서를 위한 公服制가 발달할 수 있었다. 23대 法興王 7년(520)에는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⁵⁷⁾하여 新羅 六部 사람들의 服色과 上下·尊卑를 가려 의복 제도를 정하였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것은 夷俗이라 하고 있고, 同王 10년에는 紫·緋·靑·黃의 百官 公服制度를 제정했는데, <三國史記> 色服條⁵⁸⁾에 나타나 있다.<표 3> 그리고, 법흥왕대에 제정된 公服 制度는 여전히 夷俗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襦나 袴 등은 그대로였다고 할 수 있다.⁵⁹⁾

그 후 우리나라에서 公服制度에 中國의 것을 완전히 수용한 것은 28대 眞德王 2년(648)에 金春秋가 당에 請兵하러 가서 唐 太宗에게 章服의 개혁을 청하여 中華의 制를 따르고자 하였는데 內府에서 珍服을 賜하고 이를 허락하였다.⁶⁰⁾ 김춘추는 돌아와 이를 시행하여 華制로 바꾸고, 이듬해 眞德王 3년(649)⁶²⁾부터 唐服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30대 文武王 4년(664)에는 하교하여 “婦人の 衣服도 개혁하게 하여 이후 衣冠이 中國과 같게 되었다”⁶³⁾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상류 계급의 부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 서민은 아직도 고유 복식을 착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公服制度에 唐의 제도를 수용 후 一般化되기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8세기경이 되어야 中國 服制가 정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는 三國時代의 복식 형태가 유지되어왔고, 중국 복제가 정착되고 나서는 고유복식 형태가 官職者들의 便服이나 일반 庶民服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기록들에 의하면 新羅가 中國式의 服制를 채용한 것은 7세기 중반 이후인 것이 분명하나 法興王 服飾制度를 통해 이전부터 삼국시대에 독자적인 의복체도가 제정되었고 이러한 고유복식 형태가 7세기 중반까지 유지되어

<표 3> 新羅 17官階 公服 制度⁶¹⁾ (520년)

官階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官等名	伊伐浪	伊浪	迺浪	波珍浪	大阿浪	阿浪	一吉浪	沙浪	級伐浪	大奈麻	奈麻	大舍	舍知	吉士	大鳥	小鳥	造位
冠	錦冠		緋冠								組纓						
服	紫衣(眞骨以上)					緋衣(6頭品)			靑衣(5頭品)		黃衣(4頭品)						
笏	牙笏																

왔음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기록을 통해 眞德王 以後 唐으로부터 사여된 服飾은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錦袍, 紫衣, 紫羅繡袍는 唐에서 新羅의 王에게 사여한 것이고, 插金線繡 羅裙衣는 王妃에게 내렸다. 帶는 金帶, 錦袖帶 등이고 使臣에게는 高下에 따라 緋袍, 綠袍 銀帶를 내리고 있다. 특히 聖德王代(702~737)에는 緋襪袍를 사신에게 내리고 있다. 그 후 200여년이 지난 뒤 42대 興德王 9년(834)에 다시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는 9세기의 복식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興德王 服飾制度(834)로 이를 통해 신라시대의 복식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冠帽는 幘頭 一色이고, 衣服은 上衣로는 表衣, 短衣, 半臂, 襟襠, 內衣, 袂, 腰帶(鈎帶, 布帛帶), 襖袴를 입고, 下衣로는 袴, 表裳, 內裳, 襪·襪袴, 신발로는 靴·履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文獻에 나타난 服飾

중국 상고 문헌에 나타난 신라의 복식을 살펴보면 <隋書> 新羅條, <北史> 東夷傳 新羅條에 婦人은 辮髮하여 머리에 두르고, 雜綵와 珠로 장식하였다

고 하였다.⁶⁴⁾ 또한 <唐書> 東夷傳 新羅條에서, 남자는 褐袴를 입고 머리를 잘라 팔고 黑巾을 썼다고 하였고, 부녀자는 長襦를 착용하였다 하였으며, 粉黛를 하지않고 美髮을 머리에 두르고 珠綵로 장식하였다⁶⁵⁾ 하였다. <舊唐書>⁶⁷⁾와 <五代史>⁶⁸⁾에서도 婦女의 髮을 머리에 두르고 비단과 珠玉으로서 장식을 하였으며 髮은 극히 아름답다고 하였다. <東京雜鬢>⁶⁹⁾에서 신라시대 여성은 머리를 腦後에 結髮하게 하고 이것을 北髻라고 이름 붙였다.

이상과 같이 문헌을 통해 新羅 婦女의 髮樣을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긴머리를 땀아 머리에 두르는 엷은머리 형태, 둘째는 머리 뒤쪽에 머리를 고정시키는 쪽진머리 형태이다. 엷은머리 형태를 하기 위해서 높은 계급 부녀자는 엷은머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머리 외에 髻를 이용하여 더 크고 아름다운 머리모양을 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三國史記> 聖德王條⁷⁰⁾와 景文王條⁷¹⁾에도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그 당시 이미 髻가 외국에 수출할 정도의 新羅의 名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貧者들이 잘라 판 머리털을 모아 크게 髻를 만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높은 계급 부녀들은 이를 구입하여 머리를 裝飾하여 高髻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眞德王 以後 唐朝의 賜與 服飾⁶⁵⁾

時期	對象	賜與服飾內容
文武王 5년 (665)	王	紫衣一襲 腰帶一條 彩續羅一百匹 二百匹
聖德王 23년 (724)	鄉	錦袍金帶 綵素共二千匹
29년 (730)	大使	紫袍錦細帶 綵一百匹
30년 (731)	鄉	續羅各五百匹 絹二千五百匹
32년 (733)	王	紫羅繡袍 金銀細器物 瑞紋錦五色羅綵共三百餘段
33년 (734)	使臣	緋袍 平慢銀帶 絹六十四
景德王 2년 (743)	王弟	錄袍銀帶
元聖王 2년 (786)	王	羅錦綾綵三十四 衣一副
	王妃	錦綵綾羅二十四 押金線繡羅 衣一副
	大宰相 小宰相	衣一副 衣一副
景文王 5년 (865)	王	錦綵五百匹 衣二副 金銀器七事
	王妃	錦綵五十四 衣一副 銀器二事
	王太子	錦綵四十四 衣一副 銀器一事
	大宰相	錦綵三十四 衣一副 銀器一事
	小宰相	錦綵二十四 衣一副 銀器一事

또한 남자의 쓰개 중 黑巾이 보여지고 있다. 한 폭의 천을 머리를 감싸 두르고 위에서 매듭하여 뒤로 늘어뜨린 형태일 것이다.

한편 <三國遺事> 景文王條에는 왕위에 오르자 왕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 당나귀의 귀처럼 길어졌는데 幘頭로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王后나 官人은 모르고, 오로지 복두장이만 알고 있었음에 관한 설화 내용이 있다.⁷²⁾ 이를 통해 幘頭는 官人 뿐만 아니라 王도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三國遺事> 元聖王代 기록에서는 伊滄 金周元의 꿈 해몽 과정에서 幘頭와 素笠의 언급이 있다.⁷³⁾ 이를 통해 幘頭는 官職者의 冠帽고, 素笠은 평민의 冠帽임을 알 수 있고, <三國遺事>의 기록은 당시 신라에서의 것은 아니지만 三國時代부터 笠의 존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笠은 <說文解字>, <良紹傳>, <無羊傳>에서 더위와 비를 막는 데에 쓰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는 冠帽的 요소 보다는 器具的 요소가 많았다.⁷⁴⁾ 그러므로 笠은 위에 언급된 설화의 내용처럼 貴人의 것이라기 보다 庶民의 冠帽이고 서민들은 노동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신라의 金鈴塚과 天馬塚에서 출토된 白樺樹皮笠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笠이다. 천마총 출토 彩畫板은 립 일부인 遮陽으로 자작나무 껍질 8장을 이어 책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여기에 帽가 갖추어지면 립 형태가 된다. 그러나, 笠에 騎馬人物, 極樂鳥 등이 그려져 있어 王, 王族, 貴人의 것으로 사료되어 庶民用과 구별된다. 한편 笠의 형태는 <說文解字>⁷⁵⁾, <篇海>⁷⁶⁾, <急就篇注>⁷⁷⁾의 기록을 통해 篋은 우산 형태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고, 笠은 머리에 쓰는 관모형임을 알 수 있다.

3. 遺物에 나타난 복식

1) 남자복식

① 圓領

隍城洞 古墳(7세기 후반) 남자상 중 <그림 6-1>은 筒袖의 깃이 밟고 폭이 좁은 바닥길이의 단령을, <그림 6-2>는 窄袖의 깃이 밟은 발목길이의 단령을, <그림 6-3>은 窄袖의 무릎길이의 缺袴袍의 단령을 착용하고 있다.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使節圖(7세기말~8세기초)에 나타난 신라사절⁷⁸⁾<그림 8>과 維摩經變

부분 추정신라사절은 깃이 밟고, 筒袖, 長袖의 단령을 입고 있는데 길이가 짧다. 龍江洞 古墳(8세기 중·후반) 남자상 중 <그림 10-1·2>는 깃이 밟은 大袖袍의 단령으로 裾端에 襪이 가해져 있고 바닥길이다.

襪은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盤領袍에 襪을 가한 것은 중국의 北周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반령은 胡服의 의미였으나 唐代가 되면서 이미 호복이란 개념에서 벗어났고 여기에 漢式의 고유 의복 형태로 上衣下裳式 深衣의 요소인 襪을 가하여 한식 의복으로써의 전통을 고수하여 완전한 漢族의 服飾으로 정착시킨 것이다.⁷⁹⁾ 襪이 가해진 이러한 포는 중국에서 士人의 常服 및 通服으로 착용되었기 때문에 용강동의 이 남자상 역시 士人이고 그 중에서도 文官으로 보인다. 이미 신라는 8세기초 聖德王代에 襪袍를 수용하였으나 일반화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8세기 중·후반에서야 사용되었음을 이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남자상 <그림 10-3>은 窄袖로 소매길이가 짧은 겹고포의 무릎길이 단령이다. 한편 김동옥은 신라에서의 단령 착용은 권위의 신분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⁸⁰⁾, 이를 통해 단령 착용자는 官職者라 사료된다.

② 直領袍

<그림 7>(706년경)에는 右衽 直領의 大袖衣를 입은 신라사절을 볼 수 있는데, 포의 길이는 무릎 정도이고, 깃과 끝단에는 異色の 襪을 둘러쌌다. 김유신묘 십이지상<그림 9>(8세기경)에는 大袖의 左衽 直領을 입고 있는데, 발목길이다. 이를 통해 8세기 전반기까지는 직령포가 단령과 혼용되고 있으며, 좌·우임도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착수가 아닌 대수는 신분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료된다.

③ 衣, 袴

의와 고는 단령과 직령포 안에 입은 內衣를 말하는 것으로, 窄袖 窮袴의 형태를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에서는 소매를 걸어들여 착수의 내의를 살필 수 있고, <그림 6-3><그림 9><그림 10-3>에서 궁고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7>에서는 끝단에 선이 둘러져 있는 大口袴를 입고 있어 두가지 형태의 바지가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幘頭

<그림 6-1>은 巾子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2단

으로 된 복두를 쓰고, 後面에는 脚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국(커다란 구멍)이 있다. 강순제⁸¹⁾는 이 복두는 平頭小樣이 유행하던 唐 初期 보다 後代의 것으로 늦어도 700년대 以前의 양식으로 보고 있다. 8세기 중·후반의 <그림 10-1>의 인물도 복두를 착용하고 있는데 7세기 후반의 <그림 6-1> 복두 형태와 차이가 없어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胡帽

<그림 6-2>와 <그림 10-3>은 弁狀의 호모를 쓰고 있는데, 이는 尖頭型 帽로 이는 중앙아시아 일대의 여러 민족이 쓰던 일반적인 형태의 모자였으며, 唐에 왕래하던 상인들이 착용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형태는 원추형의 고깔 모자로 끝이 뾰족한 것과 굽은 것 두 종류가 있다. <舊唐書>에 “개원초 말을 끄는 관인이나 말을 타는 사람은 모두 호모를 썼다.”⁸²⁾라는 기록을 통해 胡帽은 중원에 전해져서 馬夫, 駝夫 등의 쓰개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복두와 마찬가지로 호모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 7>에서는 鳥羽가 변형된 牛角이 꽃힌 弁狀 冠帽을 볼 수 있는데, 弁狀 冠帽에 鳥羽를 삽식하는 것은 삼국의 공통적인 풍습으로 이는 계급 구분의 수단이었고, 이후에는 自然的 鳥羽가 金羽나 金屬製 鹿耳 등의 변형 장식이 발생했는데 이는 여전히 계급 구분의 수단이었다. 이를 통해 여기에 나타난 牛角의 折風帽를 쓴 사신은 높은 계급의 인물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런 형태의 관모를 8세기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變形 鳥羽冠의 末期 형태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그림 7> 인물이 <그림 6-2><그림 10-3> 인물보다 높은 계급으로 사료된다.

⑥ 鈿帶

대부분이 金鈿帶에 環이 달려 있고 환에 여러 종류의 腰佩를 달았는데, 銀鈿帶도 출토되었다. 瑞鳳塚 古墳 등에서 출토된 金製 鈿帶는 環에 杏葉形·短冊形·透彫圭形·鑷子形·透彫兩脚形·茄子形·透彫飾附砥石形·印籠形·曲玉·魚形 등의 腰佩가 달려 화려하고, 金尺里 古墳에서 출토된 銀製 鈿帶는 短冊形 佩物만이 있는 단순한 형태이다.

⑦ 靴, 履

<그림 6-1> 인물이 리를 신을 것으로 보이고, <그

림 6-2·3><그림 7><그림 10-3> 인물이 화를 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활동성의 多少에 따라 구분되어 신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2) 여자복식

① 襦, 裳

<그림 6-4>는 筒袖의 깃이 발은 원피스 형태의 상을 입고 있는데 바닥길이다. <그림 10-4·5>는 깃이 가슴높이의 바닥길이 상을 입고 있다. 또한 <그림 10-4·5>는 상 위에 大袖의 유를 착용하였다.

② 布帛帶

<그림 6-4>는 가슴높이에 대를 두르고 있고, <그림 10-4·5>는 裳 위에서 둘러 두줄을 늘어뜨렸다. 興德王 服飾制度를 보면, 6·5頭品女는 金銀絲, 孔雀尾, 翡翠毛爲組를 禁하고, 4頭品女는 輪曹 野草羅, 乘天羅, 越羅를 禁하고, 綿紬를 用하고, 平人女는 綾絹을 用했다하여 布帛帶로 사료된다. 唐代的 裙에는 裙帶라 하여 매는 끈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端을 좁게하여 그 위에 가느다란 腰帶를 前結하고 兩端을 앞으로 늘어뜨렸다.

③ 髮樣

<그림 6-4>는 가르마를 정수리까지 타고 後頭 中間에서 結髮한 형태이고, <그림 10-4·5>는 머리 위에 髻를 얹은 高髻의 형태로, 이는 소르축 출토 벽화의 女供養者 발양과 유사하다. 한편 <그림 10-4>의 계가 <그림 10-5>의 계 보다 크기가 커 계급차에 따라 크기에 차이를 둔 것으로 사료된다.

④ 裋

<그림 10-4>는 어깨에 표를 들렸다. 이 인물상은 8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7세기 후반의 황성동 고분 여인상에는 표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세기가 되어서야 착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唐代에는 披帛과 帔子가 구별되어 사용되어졌는데, <事物紀原>⁸³⁾에 여자들이 집에 있을 때는 披帛을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帔子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廣雅>에 “裋, 被巾也”라 하고, <玉篇>에 “帔, 在肩背也”라 기록되어 있어 裋와 被巾이 같은 것이고, 어깨에 두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帔子, 披帛은 우리나라의 裋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깨에 둘러 미적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10-5>는 표 착용

이 불명확한데, 이는 제정된 흥덕왕 복식제도에서 표의 사용이 不可한 계층이 平人女로 기록되어 있어 이들이 平民 계층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신

<그림 6-4>는 신이 裳에 가려 발등만 확인이 되는데, 履로 보인다. <그림 10-5>는 高頭履로 보이는 신을 신고 있는데, 상이 그 위로 걸쳐있다. 이를 통해 고두리가 新羅에서는 8세기가 되어야 착용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論

渤海와 新羅의 服飾을 살펴본 결과 양국간 복식의 공통점을 몇가지 제시한다.

첫째, 服飾制度에서 양국의 服色은 발해는 紫·緋·淺緋·綠이고, 신라는 紫·緋·靑·黃의 四色 公服制度를 공통적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兩國의 官服은 幘頭, 團領, 帶로 발해의 團領은 옆트임 있는 缺胯袍와 가죽끈을 착용하고, 新羅는 옆트임 있는 缺胯袍와 옆트임 없고 襪이 있는 有襪袍를 착용하고 鈔帶를 착용하였다. 다만 발해의 관복은 貞孝公主墓 벽화에 나온 男裝女人의 侍女의 服飾만을 언급함으로써 높은 계급의 복식 형태의 파악은 힘들다. 하지만 신라와 마찬가지로 有襪袍의 團領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복두는 脚이 뒤에서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건국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以前 時代의 服飾 형태를 계승하는데 발해는 高句麗를, 신라는 古 新羅의 형태를 유지하여 襦와 袴를 공통적으로 착용하였다. 渤海에서는 擊毬와 蹴鞠이라는 풍습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모든 계급에서 襦와 袴를 착용하였고, 章懷太子李賢墓 벽화에 나타난 新羅 使節의 복식과 김유신묘 십이지상도 유과 고의 복식형이었다. 다만 장희태자이현묘 사절은 唐 服飾으로의 과도기적 형태로 8세기 전반을 前後로 하여 변화했다. 신라는 7세기 중반에 이미 당의 복식을 수용하였지만 이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라 본다. 渤海에서도 武王代에 唐服을 수용했으나 文王代가 되어서야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발해는 女子 衣服으로 上衣 위에 가슴까지 끌어올린 裳을 입고 直領의 袍를 걸친다. 裳 위로 腰帶를 두르고 褸袴를 그 위에 둘러 장식적인 효과로 前面에서 2줄로 늘어뜨렸으며 어깨에는 운건을 들렀다. 신라의 여자 의복은 上衣 위에 가슴까지 끌어올린 裳을 입고 裳 위로 腰帶와 褸袴를 둘러 전면에서 늘어뜨렸으며 어깨에는 袂를 착용하여 발해 여자복식과 형태상 공통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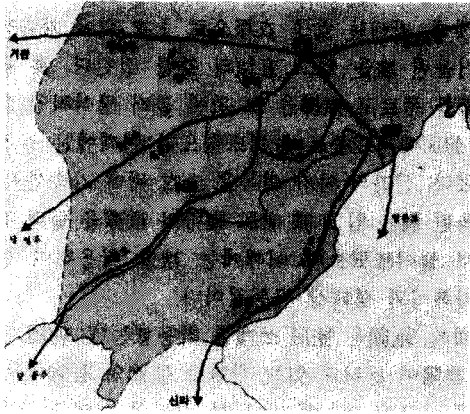
넷째, 兩國은 笠形 쓰개를 착용했는데, 帽體가 있고 遮陽이 둘러져 있는 형태로 裝飾의 有無에 따라 계급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신발의 형태도 공통적으로 남자는 靴와 履를, 여자는 高頭履를 신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공통점이 나타나게 된 것은 兩國의 政治·社會面에서 교섭과 대립이 반복되는 복잡한 이해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한 이해 관계 속에서도 文化의 交流는 이어져 服飾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渤海와 新羅의 服飾의 형태와 용도 등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渤海와 新羅 服飾·文化的 交流가 公式的 혹은 非公式的으로 상당 기간 이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발해와 신라 교류의 歷史的 史實은 使臣 왕래를 통한 교류, 新羅道를 통한 교류, 唐에서의 교류, 日本에서의 교류, 불교 문화의 교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문화적 교류 통로에 의해 서로의 文化 交流가 가능했을 것이고 이러한 교류로 인해 兩國 服飾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服飾은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尺度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이러한 양국 복식의 유사성은 문화의 유사성으로 확대해 볼 수 있고, 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이끌어 가는 공동 주체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발해와 신라가 존재했던 7세기 후반~10세기 전반의 시기는 “南北國時代”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제안점을 제시하여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발해의 의복 유물자료가 부족하여 다양한 비교를 하지 못하였지만 1991년에 발견된 발해 벽화묘인 三陵屯 2號墓는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그림 1> 발해의 교통로
(출처: 발해를 찾아서)



<그림 3> 상경용천무출토 인물을 그린 벼루
(참고: 조선유적유물도감)



<그림 4> 청동기마인물상
(출처: 발해를 찾아서)



<그림 2-1-a·b : 무사, 2-2-a·b : 시위, 2-3-a·b : 악기>



<그림 2-3-c : 악기, 2-4-a·b : 시중, 2-5-a·b·c : 내시>

<그림 2> 정효공주묘 벽화인물 (참고: 발해를 찾아서)



<그림 5> 청동여인상
(참고: 발해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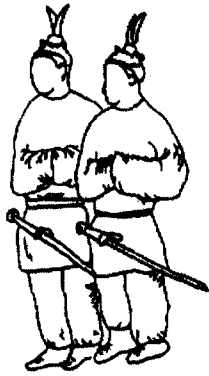


<그림 6-1, 그림 6-2, 그림 6-3, 그림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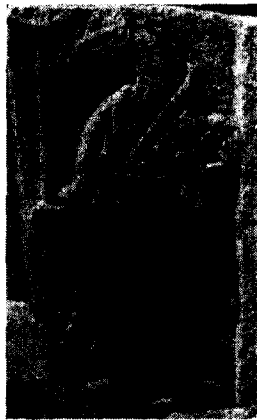
<그림 6> 황성동고분출토 인물상 (참고: 신라인의 무덤)



<그림 7> 장회태자이현묘 벽화 신라사절
(참고:한국복식사)



<그림 8> 아프라시암궁전벽화 신라사절
(참고:실크로드 미술)



<그림 9> 김유신묘십이지상
(출처:한국복식사)

<그림 10-1 그림 10-2 그림 10-3 그림 10-4 그림 10-5>
<그림 10> 용강동고분 출토 인물상 (참고:신라인의 무덤)

참고문헌 및 미주

- 渤海考
 - 渤海國志長編
 - 日本後記
 - 三國史記
 - 册府元龜
 - 金珉志, 渤海(698~926)의 服飾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 金素賢, 唐時代의 胡服에 관한 研究,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 宋基豪, 渤海의 歷史의 展開過程과 國家位相, 서울대 박사논문, 1995
 -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 研究-新羅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1991
 - 강순제, 冠帽研究(1)-7C~13C 幘頭受容 이후의 韓國과 日本의 冠帽를 중심으로-, 성심여대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1권 제1호, 1991.7
 - 구인숙, 慶州 隍城洞古墳 出土 土俑의 服飾史的 意味, 복식 13호, 1986
 - 김동옥, 慶州 龍江洞古墳 出土 陶俑의 服飾史的 意味, 신라문화재학술발표 논문집 8집, 1987
 - 金文子, 渤海服飾에 대한 研究, 수원대 논문집 115집, 1997
 - 김민지,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2)-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용을 중심으로-, 복식 22호, 1994
 - 김원룡,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업 궁전벽화 사절도, 고고미술 134, 1976
 - 김성호, 발해와 후기신라의 관계, 발해사연구 논집(1), 1995
 - 송기호, 북한의 발해고고학과 발해문화, 역사와 현실, 1990
 - _____, 발해인의 생활, 복식 26호, 1996
 - 윤명철, 渤海의 海洋活動能力에 대한 檢討, 고구려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집, 1998
 - 李佑成,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발해사 연구논집, 1989
 - 全虎兌, 渤海의 고분벽화와 발해문화, 고구려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8
 - 채태형, '협계태씨족보'에 실린 발해사 관계사료에 대하여, 발해사연구 논문집(1), 1995
 -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인의 무덤-新羅陵墓의 形成과 發展-, 통천문화사, 1996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금석문 자료선집III, 1993
 - 權寧弼, 실크로드 미술, 열화당, 1997
 - 방학봉, 발해의 축국과 격구에 대하여, 발해문화연구, 이론과실천, 1991
 - 杉本正年, 문광희 譯, 동양복장사 논고:고대편, 경춘사, 1995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해사, 한마당, 1989
 - 서병국, 발해·발해인, 일념, 1990
 - 왕승례, 송기호 역, 발해의 역사,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8
 - 劉頌玉, 韓國服飾史, 수학사, 1998
 -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이대출판부, 1989
 - 에.베.샤브꾸노프, 송기호·정석배 譯,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역사, 민음사, 1996
 - 李如星, 朝鮮服飾考, 범우사, 1998
 -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I), 경춘사, 1996
 - 전쟁기념관, 발해를 찾아서, 1998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991
 - 최무장, 발해의 기원과 문화, 문예출판사, 1982
 - 한글족보편찬위원회, 뿌리와 얼,
 -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 東洋文庫, 1970
- 1)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 研究 -新羅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박사논문, 1991, p.9
: 宋基豪, <渤海의 歷史의 展開過程과 國家位相>, 서울대박사논문, 1995, p.1
 - 2) ibid, p.5
 - 3) 이우성,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발해사연구논집>, 1989, p.86
 - 4) · 論著 : 金玟志(1993) <渤海(698~926)의 服飾에 관한 연구>, -(1994)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2)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용을 중심으로->, 金文子(1997) <渤海 服飾에 대한 연구>
· 單行本 : 유희경(1989) <한국복식사연구>, 임명미(1996) <한국의 복식문화 (I)>, 유송옥(1998) <한국복식사>
 - 5) 송기호, <북한의 발해 고고학과 발해문화>, <역사와 현실 3>, 1990, pp.280~281
 - 6)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元聖王 6年 3月 : 春三月 以一吉浪伯魚使北國
 - 7) <三國史記> 卷19 新羅本紀 10 憲德王 4年 9月 : 秋九月 遣級浪崇正使北國
 - 8) 新羅道는 발해를 중심으로 생겨난 5가지 길(新羅道, 朝貢道, 營州道, 契丹道, 日本道) 중의 하나이다. 발해에서 여러 방향으로 뻗은 이 길들은 발해 안에서 가장 궁벽한 지역들을 묶어주었을 뿐 아니라 外國과 交易-經濟 交流 및 政治 交流를 실현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9) <新唐書> 卷 219 北狄 渤海傳 : 龍原東南渤海, 日本道也. 南海, 新羅道也. 鴨綠, 朝貢道也. 長嶺, 營州道也. 扶餘, 契丹道也.
: <渤海考> 地理考 : 五京 上京 龍泉府, 中京 顯德府, 東京 龍原府, 南京 南海府, 西京 鴨綠府, 十五府 龍泉府 肅慎古地, 顯德府 肅慎古地在龍泉府南, 龍原府 濊貊古

- 地亦曰柵城府爲日本道。南海府 沃沮古地爲新羅道。鴨綠府 高句麗古地爲朝貢道。…
- 10) 渤海國南海, 鴨綠, 扶餘, 柵城四府, 并是高句麗舊地也。自新羅并京郡至柵城府, 凡三十九驛。
- 11) 發弊邑南海府 吐号浦 西指對馬嶋 竹室之津
- 12) 南海 新羅道也
- 13) 南海府 沃沮古地爲新羅道
- 14) <册府元龜> 卷971 外臣部 朝貢四 : 六年正月新羅渤海龜茲于闐焉耆牂牁雜姓平蠻黃頭室韋黑水靺鞨並遣使來賀正各獻方物
- 15) <册府元龜> 卷971 外臣部 朝貢四 : 文宗太和三年十二月渤海新羅室韋契丹南詔皆遣使朝貢
- 16) <입당구법순례행기> 卷2 : 開成五年 三月二日 登州都督府城南街東 有新羅館 渤海館 … 入州 到尙書押兩蕃使衙門開成四年 八月三日 … 更有渤海交關船 同泊彼浦 - 재인용, 서병국, <발해·발해인>, 서울: 일남, 1990, p.63
- 17) <日本後紀> 卷24 弘仁 五年 十月 - 재인용, ibid, p.377
- 18) 윤명철, <渤海的 海洋活動 能力에 대한 檢討>, <<고구려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4집>>, 1998, pp.398~399, 401~402
- 19) <陝溪太氏族譜>의 체계는 기본 족보 외에 서문 뿐만 아니라 발해국 기원, 발해국왕세략사, 발해 유민이 고려 시기에 세운 공훈, 판서공 이하 8층신의 사적, 발해국 지리와 강역 및 지도, 대씨가 태씨로 변한 사실, 연대표 등 발해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내용들이 더 실려있다. 그 가운데서도 발해국왕세략사에는 왕실 계통도, 발해 종신록, 발해국 관제 및 문물제도, 발해국 외교문서, 흥연천의 <발해세가>, 발해 멸망 후 대씨의 변동 등 독자적인 체계를 가진 부록이 덧붙여 있다. 발해국 지리와 강역 및 지도에는 발해의 5경 15부 62주, 발해강역고변, 지도 등 소재목들이 있으며 대씨가 태씨로 변한 사실에도 명천군의 건치 연혁이 덧붙여 있다.
- 참고 : 채태형, <협계태씨족보>에 실린 발해사 관계 사료에 대하여, <<발해사연구 논문집(I)>>, 1995, pp. 201~202
- 20)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聖德王 30년(731) 여름 4월 조에도 같은 기록이 나와 있다.
: 日本國兵船三百艘 越海襲我東邊 王命將出兵 大破之
- 21)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景文王 8년 6월 조에도 같은 기록이 나와 있다. : 夏六月 震皇龍寺塔
- 22) <三國史記> 興德王 2年 : 三月 高句麗僧丘德 … 入唐 貴經至, 王集諸寺僧徒 出迎之.
- 23) 김성호, <발해와 후기신라의 관계>, <<발해사연구 논문집(I)>>, 1995, pp.285~286
- 24) ibid, p.3
- 25) <新唐書> 列傳 卷244 渤海條
- 26) 渤海考> 儀章考 : 三秩以上 紫衣牙笏金魚, 五秩以上 緋衣牙笏銀魚, 六秩七秩 淺緋衣木笏, 八秩 綠衣木笏.
- 27) 金文子, <渤海 服飾에 대한 研究>, <<수원대 논문집 115집>>, 1997
- 28) 9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나 대체로 8秩과 동일할 것으로 본다
- 송기호, <발해인의 생활>, <<복식 26호>>, 1996, p.7
- 29)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발해사>, 한마당, 1989, p.74
- 30) 文王代는 文治主義를 표방하고, 개혁정치를 추진하여 국가의 기반이 확립된 시기이다. 文王은 唐 文化를 적극 수용하고 儒學과 佛敎를 진작시켰다. 그가 上京으로 遷都를 시행한 후 王權이 강화되고 國력이 신장되었는데, 이 무렵에 高麗國을 표방하였고, 774년에 大興에서 寶曆으로 改元하였고, 불교 이념을 채택하였다. 이렇듯 이러한 국가 기틀의 확립에는 國內의 인 요인 뿐만 아니라 對外的인 요인도 동시에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문왕대는 주변 각국과의 활발한 교섭을 통하여 발해의 대외적인 地位가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3省(政堂省, 宣詔省, 中臺省) 6部(忠部, 仁部, 義部, 智部, 禮部, 信部)制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기구는 이 시기에 제정되어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 31) 김민지, <渤海的 服飾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 1993, pp.9~10
- 32) <通典> 禮 嘉禮 王子諸侯玉佩劍授靈印 : 開元八年二月勅 都督刺史 品卑者借緋及魚袋 永爲常式
- 재인용, 임상선, <발해사의 이해>, 서울: 신석원, 1990, p.343
- 33) <唐會要> 卷31 輿服上 内外官章服 : 舊制 凡授都督刺史 皆未及五品者 並廳著緋佩魚 離任則停
- 재인용, ibid, pp.343~344
- 34) 최무장, <발해의 기원과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1982, pp.297~298
- 35) <渤海國志長編> 卷53 裔列傳5 : 臣本以高麗舊壤, 渤海遺黎, 保据方隅, 涉曆星紀, … 以遂本性
- 36) <舊唐書> 高麗傳 : 高麗者 … 好圍棋, 投壺之戲, 人能蹴鞠
- 37) <後漢書> 卷149 列傳 東夷高句麗條 : 好圍棋, 投壺之戲, 人能蹴鞠
- 38) 十三年正月, 渤海國使王文矩等打球, 天皇有觀打球詩
- 39) 蕭孝忠, 重熙七年爲東京留守, 時禁渤海人擊球, 孝忠言東京最爲重鎮, 無從禽之地, 若非球馬何以習武, 且天子以四海之家, 何分彼此宜弛其禁, 從之.
- 40) 天皇御重閣門, 觀射騎, 召渤海使史都蒙等亦會射場, 今五位以進裝馬, 及走馬作田舞于舞台
- 41) 방학봉, <발해의 축국과 겨구에 대하여> <<발해문화 연구>>, 서울: 이론과실천, 1991, p.240
- 42) 김민지, op. cit, p.29
- 43) 動響環佩留情組絃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금석문

- 자료집Ⅲ〉, 1993, pp.370~385
- 44) 《禮記》: 行步則有環佩之聲 - 재인용, 김민지, op.cit, p.61
- 45) 織紵組紉
- 46) 薄閣爲組, 似絕者爲紉
- 47) 貞孝公主는 3대 文王 대흥무(737~793)의 四女로, 기록을 통해 756년(渤海 大興 20年)에 출생하여 792년(渤海 大興 56年)에 죽었다. 그 이후 죽은 시기 직후에 묘가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견된 묘의 내부에는 渤海人 12인이 묘사된 벽화가 있다. 이들은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입술을 붉게 칠하였으며 풍만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이 男裝女人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唐代의 궁에서 시작된 여자의 남장 유행으로 민간에도 퍼져서 보통 여자들의 일상 裝束이 되었다. 이미 北齊에서 남장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初唐에서 盛唐에 이르기까지 크게 유행했다. 《新唐書》 輿服志에는 여자의 男裝이 契丹의 풍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거란 뿐만 아니라 서역의 각 종족의 생활 풍속이 唐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것이다. 中·晚唐期(756~907)에 이르러서는 安祿山의 亂 이후, 胡에 대한 호기심이 경각심으로 변하면서 여자의 남장 유행은 급속히 감소되어 侍女들에게만 계속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한편 문헌에서는 남장이 여러 계층에서 유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유물자료에는 주로 시녀, 그 중에서도 젊은 여자에서 나타난다. 이런 유행 현상이 同時代의 渤海에서도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 48) 이들은 拍板, 篳篥, 琵琶와 같은 악기를 주머니에 싸서 들고 있다. 이는 渤海 音樂 文化를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발해에서 유행되는 악기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발해가 대외적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발해악은 親交 차원에서 연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渤海國志長編》에 발해악이 당시 일본에서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여러 문헌에서 발해악은 唐 뿐만 아니라 日本에도 이름이 높다하였다. 연주 활동은 역사적으로 대외 활동이 시작되었던 武王代부터 시작되었고 文王代때 매우 활발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발해에서는 모든 음악활동을 관장했던 王立音樂機關인 太常寺가 있었고, 이를 관장했던 卿 이외에 여러 樂人들이 소속되어 연주하였다. 이를 통해서 벽화에 묘사된 樂伎는 이 태상사에 소속되었던 관원이라고 볼 수 있고 국내행사나 국외 사절단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49)拱手한 손으로 1인은 銅鏡, 나머지 2인은 보자기를 들고 있다. 길림성 화룡현 북대고분군에서 보상화문이 조각된 동경과 유사할 것으로 본다. 동경의 존재를 통해 외양 치장에 관심을 보였을 것이고, 화장을 하는 것이 보편적 유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 50) 최무장, op.cit, p.287 : 전호태, 《渤海의 고분벽화와 발해문화》, 《고구려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8, pp.261~262
- 51)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 p.85
- 52) 강순제, 《冠帽研究(1) -7C~13C 幘頭 受容 이후의 韓國과 日本의 冠帽를 중심으로-》, 《성심여대 생활과 학연구논집》, pp.13~14
- 53) 《三國史記》卷33 雜志1 音樂: 高句麗樂通典云… 舞者四人 椎髻於後 以絳抹額 飾以金瑣 二人黃裙襦 赤黃袴 二人赤黃裙襦袴 極長其袖 烏皮鞋 雙雙併立而舞…
- 54) 에.뵈.샤브꾸노프, 송기호·정석배 譯,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역사》, 서울:민음사, 1996, p.168
- 55) 《渤海國志長編》卷17 食貨考: 渤海人能製靴 玄錫六年聘日本使楊中遠餽暗摸靴 末王十九年使臣裴瑒貢靴於後是也 此靴蓋爲革製惟暗摸靴命名之義未詳或爲夜行時所需故名暗摸
- 56) 《都良香文集》卷4: 謝渤海楊大使贈裴瑒麝香暗摸靴 - 재인용, 김민지, op. cit, p.20
- 57)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法興王 7年: 七年春正月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朱紫之秩
- 58) 《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 新羅法興王制 自太대角干至阿淪 紫衣, 阿淪至級淪 緋衣並牙笏, 大奈麻·奈麻 青衣, 大舍至先沮知 黃衣, 伊淪·迺淪 錦冠, 波珍淪·大阿淪 衿荷緋冠, 上堂大奈麻·赤位大舍 組纓.
- 59)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이대출판부, 1989, p.75
- 60)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眞德王條: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於是 內出珍服賜春秋及其從者. 詔授春秋爲特進…
- 61) 참고: ibid, p.74
- 62)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眞德王條: 始服中朝衣冠
- 63) 《三國史記》卷313 雜志2 色服條
- 64) 《北史》卷94 列傳 新羅條: 婦人辮髮繞頸 以雜綵及珠爲飾
- 65) 참고: 구인숙, 《慶州 隍城洞 古墳出土 土俑의 服飾史的 意味》, 《복식 13호》, 1986, p.33
- 66) 《唐書》卷220 東夷列傳 新羅條: 婦人長襦… 不粉黛率美髮以縹首 以珠綵飾之
- 67) 《舊唐書》卷199 列傳 東夷 新羅國條: 婦人髮繞頸 以綵珠爲飾 髮甚長美
- 68) 《五代史》卷138 外國列傳新羅條
- 69) 《東京雜記》卷1 風俗條: 女子北髻羅時以國都北方虛缺女子結髮於腦後因名北髻
- 70) 《三國史記》聖德王 22年條: 遣使入唐 獻果下馬一匹·牛黃·人參·美髮·金銀… 等
- 71) 《三國史記》景文王 9年條: 四尺五寸頭髮五百十兩 三尺五寸頭髮三百兩 金銀頭五色綵帶并班胸各一十條
- 72) 《三國遺事》卷2 景文王條: 乃登位, 王耳忽長如驢耳

王后及官人皆未知, 唯幘頭匠一人知之.

-참고 : 유희경, op.cit, p.87

73) <三國遺事> 卷2 元聖王代 : 伊滄金周元, 初爲上宰. 王爲角干, 居二宰. 夢脫幘頭, 若素笠, … 覺而使人占之. 曰脫幘頭者失職之兆. … 王聞之甚患. … 阿滄興拜曰. 此乃吉祥之夢. 王乃辟禁左右, 而請解之. 曰脫幘頭者, 人無居上也. 著素笠者, 冕旒之兆也. …

74) 이여성, <朝鮮服飾考>, 서울:범우사, 1998, pp.129~130

75) <說文解字> : 笠無柄也

76) <篇海> : 笠笠以竹爲之 無柄曰笠 有柄曰笠

77) <急就篇注> : 笠笠皆所以禦雨 大而有把手執而行 謂之笠 小而無把首戴以行 謂之笠

78) 이 벽화에 대한 알리바움의 의견에 대한 몇가지 異見이 있는데,

i) 이 벽화의 年代가 7세기 중엽의 것이고, 이 사절들을 高句麗人으로 보는 견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본인도 인정하지만 일단

보고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이들을 渤海人으로 보는 견해다.

이 벽화의 시기에 대해 i)에서도 언급했듯이 7세기 중엽이나 7세기말~8세기초의 것이다. 발해의 공식적인 건국 시기는 698년으로 7세기말경으로 他國에 사절을 보낼 상황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들이 발해 사절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이기는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참고 : 김원룡,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사암 궁정벽화 사절도>, <고고미술 134>,1976, p.167

79) 金素賢, <唐時代의 胡服에 관한 研究>, 이대박사논문, 1994, p.115

80) 김동욱, <慶州 龍江洞 古墳 出土 陶俑의 服飾史的 意味>, <신라문화제 학술발표 논문집 8집>, p.185

81) 강순재, op.cit, p.8

82) <舊唐書> 輿服志 : 開元初 從駕官人騎馬者 皆著胡帽

83) <事物紀原> 卷3 衣裳帶服部 : 唐制, 士庶女子在室搭披帛出遇披帛子